

의약품 정보원 이용에 관한 개업의와 병원직의의 비교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영 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 태 용, 이 석 구

〈Abstract〉

Source of Drug Information among Private Practitioners and Hospital Physicians

Youngae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yong Lee, Sokgoo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rug information sources which influence physician's prescription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drug information sources between private practitioners and hospital physicians.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etter quality of drug information for both groups of physicians through the professional drug information system.

264 physicians, including general practitioners and all types of specialists who were working in hospitals and private clinics in Taejon and Chungnam a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ich was conducted by mail.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Both physician groups received drug informations mainly from medical journal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secondary sources of drug information. Namely, hospital physicians got drug information from annual meetings and textbooks, and private practitioners got it from detail men and colleagues.

2. Drug effect was the first consideration for drug selection in both physician groups. But, in the 2nd consideration, private practitioners concerned about the price, insurance and rebates, but hospital physicians were not.

3. Only 9.2% of the private practitioners satisfied with the sufficiency of drug information, whereas 22.0% of hospital physicians satisfied with it. The most insufficient area of information was drug interaction in both groups and 91.9% of the physicians suggested that a professional drug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4. Both physician groups had contacted with detail men frequently. However, it was rare for them to contact with a pharmacist. This phenomenon was more severe in the case of private practitioners.

5. Neither physician groups knew very much about drug information centers. However, they would be willing to participate if a professional drug information system were established. Also, they indicated that the information most required was drug interaction.

Key words : drug information center, physician's prescription, source of drug information

I. 서 론

우리 나라는 약에 의한 치료를 선호하는 문화적 배경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약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약물 오남용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최현식, 1996). 이는 한의학의 오래된 영향으로 약물에 의한 치료 및 건강의 유지 증진법이 국민들의 의식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의료보험제도하의 진료수입과 관련하여 의사들이 약물위주의 치료를 선호하게 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질병에는 반드시 약물을 사용해 왔으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 병폐를 가지고 있다(백용기, 1996).

이러한 약물의 과다 의존은 필연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국내에서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례 및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95년도의 경우 미국에서 약물오류로 발생하는 의료제도상의 손실이 연간 7백70억 달러로 집계되어 연간 약물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또한 약품관련 분제로 연간 약 20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이 환자보호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약사공론, 1997). 또한 약물 오류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부작용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치료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비용,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의 비용, 그 외 치료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되는 여러 간접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여러 조치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여진다.

그간 질병 퇴치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많은 신약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의약품 정보제공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도입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에서도 병원 내에 의약품 정보실 혹은 의약품정보 전담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정보실의 활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병원약사의 의약품 정보활동에 대해 의료진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그 정보제공 범위도 해당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이 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약의 효과나 투여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Miller, 1974 ; Lilja, 1976).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제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보원이 제약회사 직원일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목적이 지식의 전달보다는 약품의 판매에 목적이 있으며(Avorn, 1982), 또한 아무리 약효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투여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의약품은 약효를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에 위협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보와 정보원에 대한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 부작용의 폐해 및 잘못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상설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의약품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교육병원에는 의약품 정보실(drug information center)이 상설기구로 되어 있으며, 24시간 해당병원은 물론 일반 개업의 및 개업 약사에게도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 FDA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정보의 강제 제공을 제안했고, 미국보건성(HHS)은 의약품에 대해 약사와 의사가 자발적으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메드가이드(medguide)안을 승인하였다(약사공론, 1997).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개업의와 봉직의에 있어서 의약품 정보와 정보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의약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평소에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무엇으로부터 얻는가? 둘째, 신약에 관한 정보를 무엇으로부터 얻는가? 셋째, 전문적인 의약품 정보실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잘못된 처방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그 원인의 일부를 보여 주고,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1996년 4월 현재 충남과 대전시 의사회에 등록된 의사 중에서 치료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과 및 기초의학 분야를 제외한 2,018명과, 대전시내 4개의 종합병원 전문의 중 의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176명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충남과 대전의 개업의와 봉직의를 각각 200명씩 추출하여 총 8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표본 추출된 조사대상자 800명에 대하여 기작성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퇴직, 폐업, 이직 등으로 31명의 설문지가 반송되고 273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35.5%을 보였다. 이렇게 회송된 설문지 중에서 최종 분석대상은 자료가 미비한 9명을 제외한

264명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의약품 정보원, 정보원과의 접촉빈도, 신약에 대한 정보, 의약품 정보실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병의원의 소유형태나 근무형태를 참작하여 소유와 진료가 분리된 병원급 이상의 봉직의 군과 분리되지 않은 단독 개원형태의 개업의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근무경력, 전문의별로 구분하였고, 의약품 정보원 및 신약에 대한 정보원으로는 의학전문잡지와 학회, 연수교육, 약품설명서, 의학교과서, 의약품 정보실, 동료의사, 약품집, 제약회사 광고 관측물 등으로 구분하였다. 의약품정보로는 약물의 효과와 투여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대체약물, 의료보험 적용여부, 가격, 임신 수유부에 대한 영향 등으로 구분하였다. 의약품 정보에 대한 충실도는 “충분하다”, “그저 그렇다”, “불충분하다”로 구분하였고 정보원과의 접촉빈도는 인적(人的) 정보원과 비인적(非人的) 정보원으로 나누었으며, 인적 정보원으로는 동료의사, 약사, 제약회사 디테일 맨 등으로 구분하였다. 비인적 정보원과의 접촉빈도는 지난 1년간의 학회 및 제약회사 주관 학술세미나 참가 횟수와 정기구독 잡지수 및 원내 세미나 참석횟수로 조사하였다. 의약품 정보실에 대하여는 인지여부와 필요성 및 요구되는 정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의약품 정보원과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는 복수응답으로 하였으며 분석은 SPSSWI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개인 개업이 62.1%, 병원 등에 고용된 봉직의가 37.9%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가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이었다.

개업 또는 근무 경력별로는 9년 이하가 5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0-19년이 32.6%로 20년 미만이 전체의 89.8%를 차지하였고 평균 9년 19개월을 의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88.6%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50대 이상에서는 개업의 군이 봉직의 군보다 많았고, 30대 이하는 봉직의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1 참고>.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개업의(%)	봉직의(%)	계(%)
성 별			
남 자	148(61.9)	91(38.1)	239(90.5)
여 자	16(64.0)	9(36.0)	25(9.5)
나 이(세)			
≤ 39	57(46.7)	65(53.3)	122(46.2)
40 - 49	71(71.7)	28(28.3)	99(37.5)
50 - 59	25(83.3)	5(16.7)	30(11.4)
≥ 60	11(84.6)	2(15.4)	13(4.9)
개업 또는 취업 경력(년)			
≤ 9	89(58.9)	62(41.1)	151(57.2)
10 - 19	57(66.3)	29(33.7)	86(32.6)
20 - 29	10(52.6)	9(47.4)	19(7.2)
≥ 30	8(100.0)	-	8(3.0)
자격종별			
일반의	28(93.3)	2(6.7)	30(11.4)
전문의	136(58.1)	98(41.9)	234(88.6)
계	164(62.1)	100(37.9)	264(100.0)

2. 의약품 정보원의 종류

1) 정보원의 종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보를 얻게 된 정보원의 종류를 3가지씩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의학전문잡지가 19.7%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약회사직원이 14.2%, 동료의사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정보원이 의사군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개업의 군에서는 의학전문잡지(18.1%), 제약회사직원(17.3%), 동료의사(15.9%) 등이었고 봉직의 군에서는 의학전문잡지(22.3%), 학회(14.3%), 의학교과서(13.7%) 등의 순이었으며 의약품 정보실로부터 약품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개업의 군에서는 주로 제약회사 직원이나 설명서 및 유사한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료집단 등의 인적 매체가, 봉직의 군에서는 전문잡지나 학회 등의 비인적 매체가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의약품 정보원의 종류¹⁾

종 류	개업의(%)	봉직의(%)	계(%)
의 학 전 문 잡 지	89(18.1)	67(22.3)	156(19.7)
제 약 회 사 직 원	85(17.3)	27(9.0)	112(14.2)
동 료 의 사	78(15.9)	27(9.0)	105(13.3)
약 품 설 명 서	69(14.1)	26(8.7)	95(12.0)
학 회	34(6.9)	43(14.3)	77(9.7)
의 학 교 과 서	27(5.5)	41(13.7)	68(8.6)
기 타	109(22.2)	69(23.0)	178(22.5)
계	491(100.0)	300(100.0)	791(100.0)

1 : 복수응답 *** : P<0. 001

2) 이상적 정보원

현재의 정보원에 비추어 앞으로 제공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원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앞서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정보원으로서의 의학전문잡지가 26.8%로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학회 13.7%, 의학교과서 11.3% 등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정보원의 종류를 보여준 〈표 2〉와는 다른 결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인적 정보원에 주로 의존하지만은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전문잡지나 학회, 교과서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개업의와 봉직의 모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여 전문가인 의사집단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원의 개발에 주목하여야 될 사안으로 사료된다(표 3 참고).

〈표 3〉 이상적인 의약품 정보원¹⁾

종 류	개업의(%)	봉직의(%)	계(%)
의 학 전 문 잡 지	128(26.3)	83(27.9)	211(26.8)
학 회	70(14.3)	38(12.8)	108(13.7)
의 학 교 과 서	53(10.8)	36(12.1)	89(11.3)
약 품 설 명 서	45(9.2)	34(11.5)	79(10.1)
연 수 교 육	48(9.8)	26(8.8)	74(9.4)
자 체 발 행 약 품 집	39(8.0)	27(9.1)	66(8.4)
동 료 의 사	51(10.4)	14(4.7)	65(8.3)
기 타	55(39.5)	39(13.1)	94(12.0)
계	489(100.0)	297(100.0)	786(100.0)

1 : 복수응답

3. 의약품 정보원과의 접촉빈도

1) 인적(人的) 정보원

지난 1개월 동안 주(週)당 평균 인적 정보원과의 접촉빈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제약회사 직원과의 접촉이 제일 빈번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약회사직원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주당 3회 이상이 전체의 35.6%로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주당 1회로 33.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개업의와 봉직의 양군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료의사와의 접촉빈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없거나 주당 1회 정도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양 군 모두 비슷하였다.

그러나 약사와의 접촉빈도는 앞서의 정보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자체내의 약사를 갖고 있지 않은 개업의 군에서 더욱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바람직한 인적 정보원의 확충이나 의약품 정보의 제공시 자체 약사가 없는 개원의를 위한 개방형의 의약품 정보실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표 4 참고).

2) 비인적(非人的) 정보원

지난 1년 동안 학회나 연수교육 등의 학술모임에 참석한 회수는 개업의 군에서는 49.4%가 2-3회라

〈표 4〉 주당 평균 인적(人的) 정보원과의 접촉빈도

정 보 원	접촉횟수	개업의(%)	봉직의(%)	계(%)
동 료 의 사	0	85(51.8)	54(54.0)	139(52.7)
	1	48(29.3)	32(32.0)	80(30.3)
	2	18(11.0)	7(7.0)	25(9.5)
	≥3	13(7.9)	7(7.0)	20(2.7)
약 사***	0	158(96.4)	61(61.0)	219(83.0)
	1	4(2.4)	31(31.0)	35(13.3)
	2	1(0.6)	6(6.0)	7(2.6)
	≥3	1(0.6)	2(2.0)	3(1.1)
제약사직원	0	28(17.1)	21(21.0)	49(18.6)
	1	53(32.3)	35(35.0)	88(33.3)
	2	22(13.4)	11(11.0)	33(12.5)
	≥3	61(37.2)	33(33.0)	94(35.6)
계		164(100.0)	100(100.0)	264(100.0)

*** : P<0. 001

고 응답했으며, 봉직의 군에서는 6회 이상이 47.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약회사 주관의 세미나에 참석한 회수는 연 1회가 각각 71.4%, 69.0%로 가장 많았으며, 봉직의 군과 개업의 군의 참여 횟수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세미나에 대한 참석도는 봉직의 군에서 2-3회가 37.0%로 가장 많았고, 개업의 군에서는 73.8%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구독 잡지의 수는 개업의 군에서는 1-2개가 50.6%로 가장 많았으나 봉직의 군은 3-4개가 55.0%로 가장 많았다<표 5 참고>.

<표 5> 비인적(非人的) 정보원과의 접촉빈도

정 보 원	개업의(%)	봉직의(%)	계(%)
학회참가회수(최근1년)***			
0	2(1.2)	-	2(0.8)
1	12(7.3)	2(2.0)	14(5.3)
2 - 3	81(49.4)	19(19.0)	100(37.9)
4 - 5	42(25.6)	32(32.0)	74(28.0)
≥6	27(16.5)	47(47.0)	74(28.0)
제약사 주관 학술모임(최근1년)			
0	4(2.4)	1(1.0)	5(1.9)
1	117(71.4)	69(69.0)	186(70.4)
2 - 3	41(25.0)	24(24.0)	65(24.6)
4 - 5	2(1.2)	5(5.0)	7(2.7)
≥6	0(0.0)	1(1.0)	1(0.4)
원내 세미나(최근1주)***			
0	121(73.8)	1(1.0)	122(46.2)
1	40(24.4)	12(12.0)	52(19.7)
2 - 3	0(0.0)	37(37.0)	37(14.0)
4 - 5	1(0.6)	24(24.0)	25(9.5)
≥6	2(1.2)	26(26.0)	28(10.6)
정기구독 전문잡지수			
0	4(2.5)	-	4(1.5)
1 - 2	83(50.6)	16(16.0)	99(37.5)
3 - 4	72(43.9)	55(55.0)	127(48.1)
5 - 6	3(1.8)	15(15.0)	18(6.8)
≥7	2(1.2)	14(14.0)	16(6.1)
계	164(100.0)	100(100.0)	264(100.0)

*** : P<0.001

4.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영향을 미친 시기

평소 사용하는 의약품 처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 시기는 전체적으로 수련과정이라는 응답이 64.4%로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개업(취업)후가 34.1%로 대부분 의과대학 졸업 후가 주로 영향을 미친 시기로 분석되었으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경우는 1.5%에 불과하였다.

특히 봉직의 군이 수련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7.0%인데 반하여 개업의 군에서는 56.7%만이 수련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개업의 군에서는 개업 후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1.5%로 봉직의의 22.0%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표 6 참고).

〈표 6〉 의약품 처방 습관에 영향을 미친 시기

구	분	개업의(%)	봉직의(%)	계(%)
의과대학과정		3(1.8)	2(1.0)	4(1.5)
수련과정		93(56.7)	77(77.0)	170(64.4)
개업(취업)후		68(41.5)	22(22.0)	90(34.1)
계		164(100.0)	100(100.0)	264(100.0)

** : P<0.01

2) 처방시 고려요인

의약품의 선택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3가지를 복수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약효를 제일 중요시(31.6%)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부작용이라는 응답이 22.1%, 의약품의 가격 13.9%, 보험급여여부 9.1%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업의 군에 있어서는 약효(31.3%), 부작용(20.4%), 가격(18.1%), 보험급여여부(12.1%) 등의 순이었으며 봉직의 군에 있어서는 약효(31.0%), 부작용(24.7%), 투여방법(13.3%), 가격(7.0%) 순이었다(표 7 참고). 특히 투여방법에 있어 봉직의가 개업의보다 민감한 것은 개업의의 경우 다양한 제형을 비교적 덜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의약품 재고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 경영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¹⁾

요 인	개업의(%)	봉직의(%)	계(%)
약 효	157(31.3)	93(31.0)	250(31.6)
부 작 용	101(20.4)	74(24.7)	175(22.1)
가 격	89(18.1)	21(7.0)	110(13.9)
보 험 급 여	58(12.1)	14(4.7)	72(9.1)
투 여 방 법 ²⁾	31(6.6)	40(13.3)	71(8.9)
기 타	56(11.5)	58(19.3)	114(14.4)
계	492(100.0)	300(100.0)	792(100.0)

1 : 복수응답 2 : 주사제, 정제, 액상제제, 연고 등을 말함

*** : P<0.001

3) 동일성분일 경우의 선택요인

〈표 7〉이 동일 성분이 아닌 의약품의 선택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라면 〈표 8〉은 동일 성분의 의약품 중에서 하나의 상품을 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표이다. 동일한 성분인 경우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약품의 가격이 27.4%로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제약사에 대한 신뢰도 22.7%, 투여방법 20.8% 등으로 이들 요인이 전체의 70.9%를 차지하였다. 이를 개업의와 봉직의의 군으로 나누어 보면 개업의의 군이 약품의 가격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반면 봉직의의 군은 투여방법이었고, 그 다음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개업의의 군에서 높게 나타나 약품의 가격이 두 번째 요인이었던 봉직의의 군과 대조를 나타내었다(표 8 참고).

〈표 8〉 동일성분의 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¹⁾

요 인	개업의(%)	봉직의(%)	계(%)
가 격	143(29.5)	71(24.0)	214(27.4)
제 약 사 의 신 뢰 도	120(24.8)	57(19.3)	177(22.7)
투 여 방 법	83(17.1)	80(27.0)	163(20.8)
제 약 회 사 의 서 비 스	56(11.5)	35(11.8)	91(11.7)
기 타	83(17.1)	53(17.9)	136(17.4)
계	485(100.0)	296(100.0)	781(100.0)

1 : 복수응답 * : P<0.05

4) 신약의 선택요인과 정보원

신약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개업의의 30.9%와 봉직의의 28.7%가 약물의 효과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이 부작용이었다. 그 다음으로 개업의 군에서는 약가나 보험급여가 중요한 요인이었고, 봉직의 군에서는 투여방법과 보험급여가 차지하였다.

신약에 관하여 어느 정보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가라는 질문에 두 군 모두에서 의학 전문잡지가 각각 22.8%, 2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약사직원, 동료의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약 회사의 판촉물의 경우에는 두 군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개업의 군에서 13.3%로 봉직의 군보다 약 2배정도 높았다<표 9 참고>.

<표 9> 신약의 정보원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 류	개업의(%)	봉직의(%)	계(%)
선택시 영향요인 ¹⁾ ***			
약 효	150(30.9)	86(28.7)	236(30.0)
부 작 용	100(20.6)	73(24.3)	173(22.0)
가 격	90(18.5)	33(11.0)	123(15.6)
보 험 급 여	69(14.2)	17(5.7)	86(10.9)
투 여 방 법	18(3.7)	33(11.0)	51(6.6)
기 타	59(12.1)	58(19.3)	117(14.9)
소 계	486(100.0)	300(100.0)	786(100.0)
정보원의 종류 ¹⁾ **			
의학 전문 잡지	106(22.8)	73(24.3)	179(23.4)
제약 회사 직원	98(21.1)	57(19.0)	155(20.3)
동료 의사	70(15.1)	33(11.0)	103(13.5)
판 촉 물	62(13.3)	19(6.3)	81(10.6)
기 타	129(27.4)	118(39.3)	247(32.2)
소 계	465(100.0)	300(100.0)	765(100.0)

1 : 복수응답 ** : P<0.01, *** : P<0.001

5. 정보의 충실도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4.0%만이 충분하다고 하여 대다수의 의사들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개업의 군에서 45.1%, 봉직의 군에서 24.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 중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는 가장 부족하게 느끼고 있는 요인으로 약물간의 상호작용을 들었으며(26.2%), 다음으로는 안정성 및 혼합가능성(20.4%), 부작용(14.8%)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업의와 봉직의 군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표 10 참고).

〈표 10〉 의약품정보에 대한 만족도 및 미충족 요인

구분	개업의(%)	봉직의(%)	계(%)
만족도**			
만족	15(9.2)	22(22.0)	37(14.0)
보통	75(45.7)	54(54.0)	129(48.9)
불만	74(45.1)	24(24.0)	98(37.1)
소계	164(100.0)	100(100.0)	264(100.0)
미충족 정보¹⁾			
약물상호작용	114(24.5)	83(29.1)	197(26.2)
안정성 및 혼합 가능성	103(22.1)	50(17.5)	153(20.4)
부작용	67(14.4)	44(15.4)	111(14.8)
임신·수유부에 대한 영향	61(13.0)	37(13.1)	98(13.0)
기타	121(26.0)	71(24.9)	192(25.6)
소계	466(100.0)	285(100.0)	751(100.0)

1 : 복수응답 ** : P<0.001

7. 의약품 정보실에 관한 인식도 및 내용

1) 정보실에 관한 지식과 이용

현재 대전 충남지역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실은 약 4개 정도가 있으며 정보실은 갖추지 않고 있으나 내부 정보담당약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상당수가 되고 있다. 이들 정보실의 주요 업무는 약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의료진에 전달하고 있으며 자체 정보수집 기능과 수시로 내 외부의 약품관련 문의에 비정기적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실과 관련하여 병원내에서 의약품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실에 관해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개업의 군은 89.0%가 모르고 있었으며 봉직의 군에서는 58.0%가 모르

고 있어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77.3%에서 모르고 있었다. 또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서도 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하였으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26.7%나 차지하였다.

그러나 의약품 정보실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의 66.7%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하여 현재 정보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도 빈번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의약품 정보실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는 많은 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 참고).

〈표 11〉 약품 정보실에 대한 조사

구 분	개업의(%)	봉직의(%)	계(%)
인 지 도***			
알고 있다	18(11.0)	42(42.0)	60(22.7)
모 른 다	146(89.0)	58(58.0)	204(77.3)
소 계	164(100.0)	100(100.0)	264(100.0)
필 요 성			
필 요	101(61.6)	75(75.0)	176(66.7)
보 통	54(32.9)	22(22.0)	76(28.8)
불 필 요	9(5.5)	3(3.0)	12(4.5)
소 계	164(100.0)	100(100.0)	264(100.0)
이 용 빈 도			
자 주	1(5.6)	4(9.5)	5(8.3)
가 끄	13(72.2)	26(61.9)	39(65.0)
전 혀 없 다	4(22.2)	12(28.6)	16(26.7)
소 계	18(100.0)	42(100.0)	60(100.0)

*** : P<0.001

2) 정보실에 대한 요구

만일 의약품 정보실이 상설 운영된다면 필요로 하는 관련 정보에 대한 자문이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개업의 군에서는 약리학전공 의사가 36.6%로 가장 많은 반면 봉직의 군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가 51.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원하는 약품정보에 관한 질문에는 개업의 군에서는 약물상호작용, 부작용 및 독성, 적응증 등의 순이었으며, 봉직의 군에서는 약물상호작용, 부작용 및 독성, 관련문헌 등의 순이었다(표 12 참고).

〈표 12〉 정보실에 대한 요구사항

구 분	개업의(%)	봉직의(%)	계(%)
정보실 담당자**			
내과의사	51(31.1)	17(17.0)	68(25.8)
약리학 전공의사	60(36.6)	21(21.0)	81(30.7)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	36(21.9)	51(51.0)	87(32.9)
기 타	17(10.4)	11(11.0)	28(10.6)
소 계	164(100.0)	100(100.0)	264(100.0)
요구되는 정보의 종류1)**			
약물상호작용	79(17.3)	55(18.3)	134(17.7)
부작용 및 중독	73(16.0)	40(13.3)	113(14.9)
적 응 증	58(12.7)	27(9.0)	85(11.2)
참고문헌	42(9.2)	43(14.3)	85(11.2)
안정성 및 혼합 가능성	52(11.4)	21(7.0)	73(9.6)
작용기전	27(5.9)	29(9.6)	56(7.4)
임신·수유부에 대한 영향	31(6.8)	12(4.0)	43(5.7)
용량 및 용법	14(3.1)	26(8.7)	40(5.3)
보험급여	29(6.3)	3(1.0)	32(4.2)
기 타	52(11.4)	44(14.7)	96(12.7)
소 계	457(100.0)	300(100.0)	757(100.0)

1 : 복수응답 ** : P<0.001

IV. 고 찰

우리 나라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다른 나라 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 1992).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의료수요의 증가와 함께 OTC (over-the-counter, 비처방약)보다는 치료제 중심의 전문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약품 총 생산 실적 중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91년의 경우 41.3%였던 것이 '94년 41.4%, '95년 43.8%로 나타나고 있다(김진현, 1996). 또한 연도별 의료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90년 27.8%, '92년 30.5%, '94년 31.8%로 10% 내외인 구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약품의 사용에 양적, 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는 신약의 개발과 기존 약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쉼 없이 발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업의들은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연구 논문이 국내외에서 발표되었다(Miller, 1973; 박실비아와 문옥륜, 1994). 국내에서는 의약품 정보의 부족도 중요한 문제점이지만 기존에 확보된 정보의 전달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많은 부분이 주요 정보매체인 매스컴과 제약회사 디테일 맨에 의해서 전달됨으로서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로 끝나게 되며 유사 의약품과의 효능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정보원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약품 정보가 봉직의는 물론이고 개인 개업의에게도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된 의약품 정보원으로는 두 군 모두에서 의학전문잡지가 첫 번째였으나, 그 다음으로는 개업의 군에서는 제약회사 직원, 동료의사, 약품설명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봉직의 군에서는 전문학회, 의학교과서, 동료의사의 순이었으며 두 군 모두에서 바람직한 정보원로서는 의학전문잡지, 전문학회, 의학교과서, 약품설명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원 중에서 제약회사 직원은 의약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백용기, 1996), 필연적으로 약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킬 것이며, 동료의사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학회나 의학교과서에 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업의 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봉직의 군에 비하여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의사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보원으로 의학전문잡지를 들고 있지만 이들 정보원들은 다양한 인쇄물과 정보를 의사 개업의가 정리하여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검색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전문적인 정보시스템에 의한 축적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은 존재한다.

또한 전문학회 참석 횟수나 정기구독 잡지수에 있어서는 봉직의 군이 훨씬 적극적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지리적, 경제적 요인이 개입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즉, 여타 정보원(제약회사 직원, 신문, 잡지 등)이 의사의 근무공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송되는 것임에 비해, 학술모임은 의사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므로 지리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며, 학회 참가시 개업의들은 의원의 문을 닫아야 하고 장소가 해외인 경우는 경제적인 요인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제약회사 주관 세미나에 참석한 횟수는 두 군 모두에서 학회참가 횟수보다 낮았는데 이것은 학회나 연수교육이 의사들의 의무적인 참가를 요하는 데 반해, 제약회사 세미나는 전혀 그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의 의약품 사용습관에 가장 영향을 미친 시기로는 다른 연구(박실비아, 1994)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군 모두에서 수련 및 전공의 기간이 전체의 64.4%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약품 사용 습관을 수련기간에 익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련병원의 의약품 사용행태가 국민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종합병원의 의약품 사용의 질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개업의 군에서는 개업 또는 취업 후라는 응답도 41.5%나 되어 22.0%인 봉직의 군과 대조를 보였는데 이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환경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봉직의 군에 비해 많은 환경적 변화가 있는 개업의 군이 개업 후 약품사용 습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의약품의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두 군 모두에서 약효와 부작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개업의 군에서는 약가, 보험급여의 순위인 반면 봉직의 군은 투여방법, 약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제제인 경우의 우선 선택 요인으로는 투여방법과 약가의 순이었던 봉직의 군에 비해 개업의 군에서는 약가와 제약회사에 대한 신뢰도의 순이었음은 위에서 조사된 의약품 정보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의약품 정보에 대한 충족정도는 개업의 군은 9.2%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개업의 군에서는 45.1%였고 봉직의 군에서는 24.0%를 나타내어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병원내에 정보원이 갖추어져 있는 종합병원 봉직의 군에 비해 개업의 군은 능동적으로 정보원을 구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부족한 정보로는 두 군 모두에서 약물상호작용, 주사제의 안정성 및 혼합 가능성, 부작용, 임신 수유부에 대한 영향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정보실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는 봉직의 군에서는 전체의 42.0%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개업의 군에서는 11.0%만이 알고 있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 65.0%가 가끔씩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바람직한 의약품 정보실 담당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업의 군은 약리학 전공의 의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과의사, 임상 약사의 순이었고, 봉직의 군에서는 임상 약사가 가장 많았고 약리학 전공의 의사, 내과의사의 순이었다. 이는 개업의 군이 약사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반면 의과대학내의 약리학 교실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있어서는 의과대학의 약리학 교실은 의약품 정보제공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봉직의 군에 있어서는 병원내에 의약품 정보실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에 관한 것은 약사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정보실에 기대하는 정보는 아주 다양하게 많았으나 두 군 모두에서 약물상호작용이 가장 필요한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약물상호작용은 양질의 의약품 사용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 소비량이 많은 현실에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이들 정보를 부족하게 얻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의사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개업의 군에서는 부작용 및 독성, 적응증, 주사제의 안정성 및 혼합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봉직의 군에서는 문헌,

부작용 및 독성, 약물의 작용기전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임신 수유부에 대한 영향이나 용량 및 용법, 보험급여 등이 있었으며 특히 보험급여에서 두 군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개업의 군과 봉직의 군은 의약품 정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보수집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정보원들 또한 정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인 의약품 정보체계가 도입되어 의사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공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의약품 정보의 불충분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의약품 정보를 의사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들이 정보를 부족하게 얻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여 의사들의 약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회사의 정보 즉, 설명서와 광고, 판촉물 등의 내용이 정확하고 공정하도록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의약품의 사용과 국민보건을 위해서는 의사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 및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개업의와 봉직의 간에 의약품 정보원의 차이를 비교하여 의약품 정보원을 활용하는 실태와 특성, 또한 그것이 의약품 처방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적인 의약품 정보체계를 통하여 의사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약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 하에 본 연구는 충남과 대전지역의 개업의와 봉직의 264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개업의 군과 봉직의 군은 의약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학전문잡지에서 얻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2차적 정보원은 봉직의 군이 전문학회나 의학교과서에서 정보를 얻는 반면 개업의 군은 제약회사 직원이나 동료의사로부터 얻고 있었다.

2. 의약품을 선택하는 첫 번째 요소로 두 군 모두 의약품의 효과를 들었으나 두 번째 요소는 봉직의 군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 약가나 보험급여, 제약회사의 서비스 등이 개업의 군에서는 선택 요소가 되었다.

3. 의약품 정보의 충실도에 대해서는 개업의 군의 9.2%만이 현재 제공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봉직의 군은 22.0%가 충분하다고 했다. 가장 부족한 정보로는 약물 상호작용이었

으며, 전체의 91.9%가 체계적인 약품정보실의 도입을 원했다.

4. 의약품 정보원과의 접촉빈도는 두 군 모두에서 제약회사 직원이 가장 많은 반면, 임상약사와의 접촉빈도는 아주 적었는데 특히 개업의 군은 약사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

5. 의약품 정보실에 대해서는 두 군 모두 잘 알지는 못했으나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문적인 정보체계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약물상호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개업의 군과 봉직의 군간에는 의약품 정보원 및 정보의 활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개업의 군은 상대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업의 군을 대상으로 의약품 정보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그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최현식. 약가와 약업경제 상관성. 대한약사회지 1996;7(3):34.
- 백용기. 의료보험제도와 의약산업. 대한약사회지 1996;7(3):53.
- Miller RR. Prescribing habits of physicians-A review of studies on prescribing of drugs, parts 7-9. Drug Intell. Clin Pharm 1974;8:81.
- 김진현. 약업경제와 약사-약국의 역할. 대한약사회지 1996;7(3):41.
- 약사공론. 약사가 의약정보 제공의 주역. 1997. 2. 13(제2915호)
- Christensen DB, Bush PJ. Drug prescribing patterns, problems and proposals. Soc Sci Med 1981;15A:343-355.
- Hemminki E. The role of prescriptions in therapy. Med Care 1975;13:150.
- Scott H, Tester WW, Knapp R. Dissemination of drug information. Hospitals 1968;42:99.
- 일간보사. 32개병원 독립된 의약 정보실 운영, 1996. 12. 17(제1989호)
- Lilja J. How physicians choose their drugs. Soc Sci Med 1976;10:363.
- Avorn J, Chen M, Hartley R. Scientific versus commercial sources of influence on the prescribing behavior of physicians. Am J Med 1982;73:4.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실천문화사, 1992.

Miller RR. Prescribing habits of physicians-A review of studies on prescribing of drugs, parts 1-6. *Drug Intell. Clin Pharm* 1973;7:492.

박실비아, 문옥륜.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정보원에 관한 연구. *J Institute Hlth Environ Sci* 1994;4(1):29.

Christensen DB, Wertheimer AI. Sources of information and influence on new drug prescribing among physicians in an HMO. *Soc Sci Med* 1979;13A:313.

Peay MY, Peay ER. The role of commercial sources in the adoption of new drug. *Soc Sci Med* 1988;26(12):1183.

Peay MY, Peay ER. Differences among practitioners in patterns of preference for information sources in the adoption of new drugs. *Soc Sci Med* 1984;18:1019.

Peay MY, Peay ER. Patterns of preference for information sources in the adoption of new drugs by specialists. *Soc Sci Med* 1990;31:467.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대한병원협회, 1996. 4. 1